



'가을로'

'그놈 목소리'

'작은 연못'

■ 가을 극장가 '팩션영화' 열풍

관객 1천 230만 명을 동원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낳았던 영화 '왕의 남자'(감독 이준익). 아름다운 광대 공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연산군 일기 60권 22장에 남겨진 두 줄의 기록에서 시작됐다. '배우 공길이 논어를 외워 말하기를 "입금은 임금과 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입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니 비록 곡식이 있을들 먹을 수가 있으랴" 공길이 논어를 외운 것이 불경하다 하여 곤장을 쳐 먼 곳으로 유배하였다.'

상상력만으로 채워졌던 영화의 공간에 실제 사건과 인물을 집어넣은 영화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상과 현실을 교묘하게 오가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들 영화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다룬다는 이유로 제작부터 관심을 모으기도 한다.

올해만 해도 '가을로'(감독 김대승)는 많은 희생을 낳았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그놈 목소리'(이형호 유괴사건) '작은 연못'(노근리 양민학살) '화려한 휴가'(5·18 민주화 항쟁), '황진이'(조선시대 개성의 기생 등이 폭발적인 관심 속에 촬영을 마치고나 진행되고 있다.

12일 개막한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기도 한 영화 '가을로'(감독 김대승)는 많은 희생을 낳았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백화점 붕괴로 연인을 잃은 주인공이 우연히 연인이 남긴 수첩을 발견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간다는 내용이다.

'그놈 목소리'(감독 박진표)는 지난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된 영구 미제사건 '1991년 이형호 유괴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아들을 납치당한 후 집요한 협박전화에 시달리는 부모의 애타는 44일을 그린 영화로 설경구가 주연을 맡았다.

# 사실 근거한 발칙한 상상

삼풍백화점 붕괴·노근리 양민학살 등 실화 배경  
'가을로' '그놈 목소리' '작은 연못' 등 속속 제작

'작은 연못'(감독 이상우)과 '화려한 휴가'(감독 김지훈)는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상처 받아 했던 시민들을 재조명하고 있다. 이들 영화는 실제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만큼 현실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화려한 휴가'의 경우 80년대 광주 금남로 거리를 완벽하게 재현한 세트장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송해고·유지태가 주연을 맡은 '황진이'(감독 장운현), 프랑스 대사와 결혼한 1890년대 한국인 궁중 무희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리심'도 실존인물을 어떻게 그릴지 고민 중이다.

이밖에 일제시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하

는 '대한독립만세', 독도 지킴이 홍순철 의용수비대장의 삶을 그린 '독도수비대', 조선의 마지막 황제 이구의 부인 줄리아 멀복의 이야기를 다룬 '줄리아(가제)' 등이 시나리오 작업 중이다.

이처럼 실존 사건이나 인물을 영화화하는 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제작자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사실이 왜곡되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관객들의 외면을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다룬 '그때 그 사람들'(감독 임상수)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화려한 휴가' 제작사인 (주)기획시대 이수남 이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을 다루거나, 혹은 관련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제작시 많은 자료 조사를 필요로 한다"며 "영화는 다큐멘터리와 달리 영화적인 장치를 이용해 인물이나 스토리를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팩션정기자 ks@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b>월드 트레이드 센터</b> 9·11테러를 소재로 비극적인 상황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인간애를 엿볼 수 있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밀리오레, CGV(광주·첨단), 프리머스
<b>레이디 인더워터</b> '식스센스'의 나이트 사말란 감독의 신작으로 아름답지만 공포스러운 물의 여신이 가져오는 끔찍한 일들을 그린 통찰적인 스릴러영화다. 전체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CGV(광주), 목포 롯데, 순천 프리머스
<b>라디오스타</b> '왕의 남자'의 이준익 감독과 박중훈, 안성기 두 배우가 빛어낸 잔잔하고 따뜻한 이야기.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광주·첨단), 하이, 목포 롯데, 목포 메가리안, 목포 프리머스, 목포 CGV, 순천 프리머스
<b>구미호 가족</b> 인간이 되고 싶은 구미호 가족의 오묘복통 간 배려가 작점이 펼쳐진다. 뮤지컬 형식 등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다. 15세 관람가.	메가박스,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목포 프리머스
<b>엔트블리</b> 개미가 되어버린 소년과 개미를 없애기 위해 등장한 살충제와의 한판승부가 시작된다. 니콜라스 케이지, 줄리아 로버츠 등 화려한 더빙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이다. 전체 관람가.	콜롬버스(상무·하남), CGV(광주·첨단), 순천 프리머스
<b>타짜</b> 조승우, 김해수, 백윤식 등 화려한 출연진이 펼치는 화려한 타짜(전문도박사)를 가리키는 은어들의 세계가 펼쳐진다. 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광주·첨단), 하이, 목포 롯데, 목포 메가리안, 목포 CGV, 순천 프리머스, 여수 힐리우드
<b>BB프로젝트</b> 명절때마다 만나는 반가운 청룡(성룡)이 이번엔 이기를 데리고 찾아왔다. 영결경에 인질범에서 보모로 변한 청룡의 치열한 코믹한 설정과 시원한 액션이 볼거리다. 12세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광주·첨단), 목포 롯데, 목포 프리머스, 순천 프리머스
<b>잘살아보세</b> 신이제한 운동이 펼쳐지는 70년대. 출산율 1위를 달리는 순둥미를 용두리에 발알을 관리하는 국가계획위원회이 찾아온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목포 롯데, 목포 프리머스
<b>기문의 부활</b> '기문 시리즈'가 돌아왔다. 기문의 위기의 '백중파'가 또 한번 코믹한 모습을 선보인다. 주인공들의 촌스러운 헤어스타일과 복고풍 의상도 웃음에 한몫 거든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이, 목포 메가리안,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세너스, 여수 힐리우드
<b>우리들의 행복한 시간</b> 공지영의 소설을 원작으로 죽음을 앞둔 남자(강동원)와 자살을 세 번 시도한 여자(나영기)가 만나 교감을 나누게 되는 과정을 잔잔하게 그려냈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밀리오레, CGV(상무·하남), 목포 메가리안, 목포 롯데, 순천 프리머스

## 주목! 이영화 '월드 트레이드 센터' 美 '비극' 호소력 있을까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9·11 테러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린 옛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도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테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감독 올리버 스톤)는 그 비극적인 날을 다시 끄집어 냈다. 사회적 짙은 영화들로 주목받았던 올리버 스톤 감독은 테러로 무너져내린 국제무역센터에 매몰되었다가 간신히 구조된 두 경찰관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휴머니즘을 전한다.

영화는 테러에 대해 정치적으로 조망하기보다는 평범한 일반인의 목소리를 통해 사건 자체가 가지는 비극성에 주목한다.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영화는 인간애가 가져다 주는 순수한



감동을 굳이 더하지 않아도 전하며 예상치 못한 참사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우정과 사랑을 이야기한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사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경찰 역을 맡아 열연했다. '미국의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2세 관람가 /팩션정기자 ks@kwangju.co.kr

## 원빈·수애 '한류' 위해 뭉쳤다

부산국제영화제서 합동 세일즈 오피스 운영



한류 스타 비와 원빈(사진 왼쪽), 그리고 배우 강동원과 수애(오른쪽), 한채영 등이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안필름마켓에서 합동으로 세일즈 오피스를 운영한다.

스타제이엔터테인먼트는 11일 "올 부산영화제에서 수애, 한채영 등이 소속된 스타제이엔터테인먼트와 비, 임소영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원빈의 소속사 드림이스트온(Dream East On), 강동원의 소속사 더맨(The Man) 등 4개 매니지



먼트사가 합동 세일즈 오피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아시안필름마켓에서는 영화를 사고 파는 일 외에도 각국 배우들에 관한 정보 교환 역시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의 합동 세일즈 오피스는 영화제 기간(12~20일) 중 15일에서 18일까지 운영된다.

중국어 출장강의

1.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 선택

2. 학업진척

3. 시간적, 경제적, 수업방식 선택

리틀차이나 中国語 学院

TEL: 02-33-5582

가족의 건강을 위한

세심함 속에는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 있습니다

신우 환기유니트

신우 환기유니트